

해명자료

문의 :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 과장(☎750-2530)
통신경쟁정책과 이광용 사무관(☎750-2533) kylee@kcc.go.kr

“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 제동” 보도관련 입장

’12.1.12.(목) 아시아경제(014면)에 보도된 “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 제동”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- “홈플러스가 MVNO 사업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” 라고 보도함

□ 해명내용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홈플러스가 MVNO 사업에 진출할지, 진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입할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,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. 따라서,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플러스의 MVNO 사업진출에 대하여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홈플러스가 MVNO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끝.